

서부권 지자체 고용위기 머리 맞대

김동연 부총리 간담회 참석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대책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마련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최근 열린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에 명현관 해남군수(왼쪽에서 세번째)와 전동평 영암군수(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참석했다. /해남군 제공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서부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와 현장에서 제갈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해남과 영암, 목포 등 서부권 지자체는 최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연 부총리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명현관 해남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이 참석해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군수는 간담회에서 해남군

지역여건과 일자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주력으로 한 공공부분 직접일자리,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등 관련사업에 578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다.

특히 내년 도입 예정인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으로 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전동평 군수는 다문화가정과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회관 코디네이터 등 6개 사업 1,840명 일자리 창출에 대한 122억원 요청과 항공 종합레저파크 조성 등 3개 사업 450억원, 총 9개 사업 572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조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의 군산시, 목포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시 동구 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남·박병태·영암·최복섭 기자

“군민이 행복한 강진 만들 것”

취임 100일 맞은 이승옥 강진군수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 강진군정의 기준과 원칙은 ‘오직 강진군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강진’ 만들기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취임 후 민선 7기 향후 4년 동안의 군정 운영방향을 확고히 했으며 군정 슬로건을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로 군수실과 사업소, 읍면사무소 입구에 ‘여민동락’의 현판을 내걸고 군민과의 일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시간과 장소, 성별, 직업 등 차별 없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더불어 행복한 강진시대’를 활짝 열었고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추진시스템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임기내 강진산단 100% 분양을 공식화하고 전담조직인 일자리창출과를 신설, 공무원과 군민, 향우들까지 기업유치 확산 대열에 유도가기 위해 행·재정적 포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투자유치 노력으로 민선 7기 출범 이전 10%대에 머물러 있던 분양률은 30%대로 뛰어 올랐다.

이와 함께 오랜 숙원인 동문안 일대와 중심상가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강진읍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4건에 413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행정절차 누락으로 지난 1년간 중단된 마량항 북카페 설치공사와 어민들과 협의를 끝내고 지난 9월 21일

가장한 해양레저사업, 조만간 취항할 예정으로 있는 제주 서귀포와 마량 신마항간의 화물선 운항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이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1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며 ‘7대분야 40개 사업’의 군수 공약사업을 잠정 확정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농림축산산업의 자생력 강화, 몽마르뜨언덕 조성 등 향토색 짙은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산업 집중 육성, 노인일자리사업 1,500명까지 확대 등의 복지공동체 실현,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군민과 공무원, 향우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강진을 번영과 행복의 땅으로 가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월출산 국립공원 ‘서른살’ 기념행사

26~27일 이틀간 기찬랜드서 국화축제와 연계
관광활성화 심포지엄·산악페스티벌 등 진행

영암군은 지난 1998년 20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의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기찬랜드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월출산 30주년과 더불어 2018영암방문의 해로 관광객 300만 유치를 위해 국화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6일 기찬랜드 가야금 삼조기념관에서 열리는 월출산 보호 및 관광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김병채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장의 ‘서른살 월출산의 발자취 및 현황’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종원 (사)한국여행가협회장의 ‘월출산 문화유적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발전전략’과 광주대학교 박종찬 교수가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을 담보하는 월출산 관광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동신대학교 김희승 교수를 좌장으로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 박철 영암관광지킴이 회장, 최문용정운대학교 교수, 김병원 목포

대학교 교수 등의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출산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 및 전략을 선포할 계획이며 공식행사 직후 진행되는 축하공연에는 MBC 가요베스트방송 주관으로 하춘화, 태진아, 강남, 김범룡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해 축하무대를 장식한다.

오는 27일에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김재수 경성남도산악연맹회장과 500명의 관광객, 지역주민, 산악회원들이 천황사에서 구름다리까지 등반하는 월출산 산악페스티벌이 진행되며 주변에는 버스킹 공연과 큰바위얼굴 예코백 만들

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한편 3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날 개최하는 월출산 국화축제는 다음달 11일까지 17일간 기찬랜드 일원에서 열리며 27종 24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을 중심으로 월출 마스코트 퍼레이드, 전국외국인가요제, 전국 청소년 FESTA 등 다양한 문화공연행사와 화목테이크아웃, 어드벤처 스탬프플레이, 국화동산 의상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예정돼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과 함께 월출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 ‘음식 명인·명가’ 모집

음식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22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음식 맛의 경쟁력을 높이고 음식관광 문화를 선도할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모집한다.

‘목포음식 명인’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시민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각종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목포음식 명가’는 해당 음식을 10년 이상 영업한 사실이 있고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목포시청 관광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목포시 명인·명가 심의위원회

의 1차 서류 심사, 2차 조리 실사를 거쳐 지정된다.

명인·명가로 인정받으면 인증서와 인증패가 교부되는 한편 목포시 관광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등재되며, 축제나 행사에서 음식부스 참가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내년에 ‘맛의 도시’ 목포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며 “명인·명가로 지정되면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명의 명인을 지정해 향토음식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 ‘두근두근 청춘 로맨스’ 신청하세요

미혼남녀 총 30명, 26일까지

진도군이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31일 보성다비치콘도 등에서 열리는 ‘두근두근 청춘 로맨스’ 행사는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에게 결혼문화에 대한 긍정적 가치

관형성을 위해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레크리에이션과 자기 소개, 빙고게임, 커플미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진도군에 거주하거나

진도에서 근무하는 만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참여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진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군청 일자리주자과 인구정책담당(061-540-38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참가자 연령과 성비 등을 고려해 총 30명의 대상자를 선발, 오는 26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청춘 남녀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

를 통해 서로를 진솔하게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이 살고 싶은 행복한 진도 만들기를 위해 청년동아리활동·전업세대·다문화 지원 등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병호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영암 금정농협 봉사대 반찬 나눔

영암군 금정농협 이웃사랑 행복 만들기 봉사대는 최근 관내 저소득 12가구에 열갈이김치, 돼지고기 주물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2010년에 결성된 금정농협 봉사대는 1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 반찬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애순 회장은 “앞으로도 사랑이 전해지도록 봉사대원들과 정성이 담긴 반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화순 북면, 어르신 밑반찬 지원

화순군 북면은 최근 행복나눔 사랑의 밑반찬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16회 반찬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계층 등 가정방문 시 독거 남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의 반찬 조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북면 복지팀은 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므로써 주민의 생활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화순=서효령 기자



현대차 곡성지점, 겨울 이불세트 전달

담양군 창평면은 최근 현대자동차 곡성지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후원받아 겨울 이불세트를 구입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현대자동차에서 지역사회의 소외이웃을 위해 진행하는 ‘H-셀프나눔플래너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곡성지점에서는 이를 상품권으로 후원해 나눔과 함께 지역 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강진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봉사

강진군 칠량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행사를 가졌다.

지난 8월부터 매달 실시한 반찬봉사는 칠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지원을 통해 음식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박운숙 칠량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봉사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식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